

여수, 일자리 가득 행복도시 만든다

민선8기 일자리 종합계획 발표
2026년까지 고용률 70% 목표
미래산업 육성 등 4대전략 제시
해양관광레저 등 특화자원 활용

여수시가 최근 '일자리 가득, 남해안 행복도시 미항여수'를 비전으로 한 '민선8기 여수시 일자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19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026년까지 고용률 70%, 일자리 5만 개 창출 달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소통과 화합을 통한 일자리행정 혁신 ▲미래산업 육성과 주도적 기술인재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일자리 균형 성장 ▲시민중심의 일자리 복지도시 구현의 4대 핵심 전략을 선정하고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먼저 여수시의 강점인 여수산단, 수소산업, 해양관광레저산업 등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새 정부 일자리 추진방향인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산단 스마트화, 기업 투자유치 등 민간 일자리 창출로 자생적 일자리 환경을 구축한다.

아울러 청년·여성·노인 등 대상·계층별 일자리 사업 특화 전략을 강화하고 사회적 경제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시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유관기관, 일자리협의회, 수행기관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역고용거버넌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4년 연속 일자리 대상을 수상한 저력으로 임기 내 고용률 70%와 일자리 5만 개 창출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면서 "신성장 미래산업에 대응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남해안 발전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수=곽재영 기자



광양 고로쇠 수액.

/광양시 제공

“칼슘·비타민 풍부 ‘백운산 고로쇠’ 드세요”

광양, 내달까지 약수 판매
1.5 l 당 6만원 본격 출하

광양시가 오는 3월 17일까지 백운산 고로쇠 수액을 채취, 판매한다. 올해 가격은 500ml(10개) 2만2,000원, 1.5 l (12개) 6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다. 고로쇠 수액은 광양백운산고로쇠약수영농조합과 각 읍면동 농협을 통해서 구입 가능하다. 최초로 산림청 지리적 표시제 제16호로 등록된 광양 백운산 고로쇠 수액은 청정지역 백운산의 고로쇠나무에서 채취된다. 날씨에 따라서 고로쇠 수액 채취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봄 숲의 선물'이라고 불린다. 경칩 무렵 채취가 시작되며, 미네랄과 마그네슘, 칼슘·비타민이 풍부하고 물보다 칼슘이 40배 더 함유돼 있어 골다공증 개선 효과가 2009년 국립산림과학원의 실험을 통해 입증됐다. 이라

한 효능 덕분에 전국적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고로쇠 수액을 구입하고 있다. 광양 고로쇠 수액 채취 농가들은 채취한 수액을 위생을 고려한 정제과정을 거쳐 판매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백운산 고로쇠 수액은 전남도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한 도지사 품질인증을 받았다. 소비자의 구매 선택지를 다양화하기 위해 소포장(500ml) 용기를 도입하고, 정제일자 및 지리적 표시 이력이 포함된 QR코드를 삽입하는 등 고객 신뢰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광양시는 품질 좋은 고로쇠 수액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정제장 시설, 기계 등을 대상으로 채취 전 위생점검을 최근 실시했다. 이강성 산림소득과장은 "고로쇠 수액은 다량의 미네랄 성분이 함유돼 특유의 달콤함으로 맛이 좋고 먹기 좋으며, 소비자에게 품질 좋은 고로쇠 수액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성진 기자

순천,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추진

입지선정위 출범 1차 회의

순천시는 신규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위해 최근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주민대표와 전문가, 시의원 등 총 11인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위촉식과 함께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공식 출범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원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선정을 위해 입지 후보지 타당성조사, 공청회·설명회 개최, 위원장 선임 등 법적 절차를 거쳐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조사과정과 결과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역할도 한다. 시는 독립된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다

음 달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올해 상반기 내 최적 후보지 1개소를 정해 2029년까지 시설을 완공한다는 목표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2030년 직매입 금지에 차질 없이 대비하고, 시민 모두가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처리라는 민생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지선정위원회가 공정한 절차를 거쳐 최적의 입지를 선정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순천=박경식 기자

담양 한국대나무박물관 공립박물관 '인증기관'

담양군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2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에서 담양에 있는 한국대나무박물관이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는 전시와 교육, 수집, 연구 등 박물관의 기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지를 비롯해 박물관의 조직·인력·시설·재정이 효과·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등 박물관 운영 전반에 대해 5개 범주를 기준으로 3년마다 평가된다. 한국대나무박물관은 설립목적의 달성도와 박물관장 전문성, 조직 및 효율적인 재정관리, 소장품관리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인정받았으며, 인증 유효기간은 2025년 12월까지이다. 전국 유일 대나무 관련 공립박물관인



담양 한국대나무박물관.

/담양군 제공

한국대나무박물관은 1981년 처음 개관해 1998년 현재의 위치로 이전했으며, 2016년 공립박물관으로 등록됐다. 담양군 관계자는 "담양의 지역특산물인 대나무의 역사, 경제, 문화적 가치 등을 교육하고 체

험할 수 있는 유일한 문화기반시설로서 인정받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대나무공예 기술의 보존과 전승은 물론 기후위기 시기 대나무의 환경적 가치를 알리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일남 기자

현대삼호중, 사내 협력사 안전전담자 육성 지원

81개사 대상 연 최대 32억

현대삼호중공업(대표이사 신현대)이 원하청상생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사내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안전전담자 선임을 의무화하고 적극 지원에 나선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안전전담자 선임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TFT를 꾸려 인건비를 지원하고,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안전전담자 선임 제도는 사내 생산 협력사의 자율 안전관리 역량 강화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올해 최초로 도입됐다. 전문인력 운영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는 물론, 협력사 내 과중된 업무를 분산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건비 지원 대상은 81개사 사내 생산 협력회사 전체이며, 매년 평가를 통해 연 최대 32억 원의 인건비를 3년간 지원한다. 직무능력평가와 안전 유공자 등 우수자를 선정해 연 1,000만 원의 인센티브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외에 ▲기술교육원 연계 환급과정 개설 ▲관계기관 및 전문 교육기관 대상 안전보건 교육 전문 컨설팅 ▲소통 및 전파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사 안전전담자 협의체 운영 등 다양한 역량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현대삼호중공업 관계자는 "사내 협력사 안전전담자 선임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무사고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원하청 상생협력의 기반을 단단히 하는 주춧돌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영암=최복섭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고흥 금산면, 이웃사랑 성금 잇따라

고흥군 금산면에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19일 금산면에 따르면 금산면 청년회(대표 최보람)에서 300만원, 궁전마을 주민 전창준 50만원, 금산초등학교(교장 최은희) 교직원 및 학생일동이 30만원을 기탁하며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온정의 손길을 더했다. 모금된 줌도리성금은 민·관 협의체인 금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정국균)에서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 지난해에는 1,026만원의 성금을 모금해 ▲취약계층 대상 계절김치담가 전달 ▲겨울 행복 나눔 공동체 사업 등을 추진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고흥=진중연 기자



광양제일교회, 설맞이 취약계층 후원금

광양제일교회가 최근 광양시 광양읍사무소에서 설 명절맞이 200만 원을 기탁했다. 기탁식에는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후원금은 (재)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을 통해 광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김중호, 민간위원장 허형체)에 지정 기탁했다. 후원금은 민족 최대 명절 설날을 맞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에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제공하기 위해 현금으로 기탁됐으며, 지역 내 저소득층 25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박재일 광양제일교회 담임목사는 "어려운 취약계층에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우성진 기자



박수관 (주)YC-TEC 회장, 1억5천만원 쾌척

기부천사 박수관 (주)YC-TEC 회장 이울 설 명절에도 고향 여수를 위해 1억 5,000만 원의 통 큰 기부를 이어갔다. 최근 열린 전달식에는 박수관 회장을 대신해 (주)YC-TEC 신덕수 부회장과 '우리이대로 봉사단' 여운익 회장, 회원들이 참석했다. 성금 1억 5,000만 원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기탁 돼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소외계층에 지원될 예정이다. 신덕수 (주)YC-TEC 부회장은 "박수관 회장의 고향 여수를 향한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박수관 회장과 함께 우리이대로 봉사단이 지역의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여수=곽재영 기자